OECD/DAC 덴마크 동료검토 회의 결과

덴마크에 대한 OECD 개발원조위원회(DAC)의 동료검토 회의가 2007.6.8 Mr. Manning 의장 주재로 개최되었음

※ 덴마크는 외무부 개발협력장관(Ms. Ulla Tornaes)을 수석대표로 8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으며(덴마크 외무부에는 외무장관과 개발협력장관이 각각 있음), 네덜란드 및 그리스가 주심사국을 맡음

Ⅰ. 주요 내용

■ 개발원조위(DAC)는 덴마크가 2005년에 GNI의 0.81%인 21억1천만불을 대외원조에 사용하는 주요 공여국의 하나로서 향후 최소한 GNI의 0.8%를 공여하기로 한 덴마크 정부 결정을 치하하고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기를 권장

■ 상기 사유로 인해 금번 동료검토 회의에서 주검토국, DAC 사무국 및 회원국들은 덴마크의 ODA 정책에 대해 칭찬 일색의 발언을 하였으며, 특히 DAC 사무국은 덴마크가 도입한 분권화 정책(decentralization: 현지 원조기관 및 대사관이 원조의 주된 집행자로 역할)이 효과적인 원조 전달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

– 반면, 미국 등 일부 회원국들은 분권화 정책으로 인해 과감한 지원(risk-taking)이 약화되고, 현지 기관의 비전문성, 부패 가능성, 공관의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조의 비효율성을 우려

Ⅱ. 상세 내용

※ 동료검토 회의는 덴마크 대표단 소개, 수석대표 연설, 사무국 보고, 주심사국 보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

1. 전반적 구조 및 정책 방향

가. 덴마크 개발협력장관 연설

- 가나 및 네팔 현장 답사, 정부 및 민간기관과의 협의 등 주심사국 및 사무국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사 및 권고사항은 매우 유익
- 덴마크의 대외원조의 기본 이념은 빈곤국이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것이며, 기후변화, 국제이주, 남녀평등, 능력배양, 반부패 노력 등이 주된 관심 사항
- 덴마크 양자 원조의 2/3정도를 아프리카에 우선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
- 원조전달의 효과성 및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권화 정책을 도입, 추진하고 있는 바, 현지 대사관을 중심으로 통합된 체제를 유지

나. 사무국 보고

- 네팔(취약국가 지원 시범사례) 및 가나(효과성 제고 시범 사례) 현장을 답사한 결과, 덴마크가 추진 중인 분권화 정책이 유용함을 평가
- 다만, 질적 향상 및 보다 결과 지향적 추진, 일부 분야 전문가 부족 현상 등은 보완해야 할 것이며, 현장 상황의 복잡성을 감안하여 원칙과 현실성을 균형되게 유지할 필요 있음

다. 심사국 보고 : 그리스, 네덜란드

- 코펜하겐, 네팔 및 가나 현장에서의 협조에 매우 만족하며 개인적으로도 많은 것을 배웠음
- GNI의 0.8% 공여에 대한 정치적 지원을 높이 평가하며, 원조의 질적 향상에 박차를 가해주기를 희망
- 분권화와 관련, 현지 대사관 직원들의 업무 부담 가중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
라. 독일

- 우선지원 분야가 너무 많음

마. 미국

- 덴마크의 대외원조 결과를 높이 평가하며, 향후 덴마크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 분야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

2. 개발 정책 일관성 증진

- 주심사국은 부처간협조위원회를 통해 덴마크 외무부 업무 이외의 분야에 대한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줄 것과 EU회원국 및 OECD 회원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권고
- 미국은 덴마크의 반부패 활동이 매우 인상적인 바, 경험과 교훈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

3. 원조 규모 및 배분

■ 주심사국은 덴마크 정부가 향후 원조규모를 최소한 GNI의 0.8%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치하하고 동 정책이 계속되길 권고함. 또한, 취약국가에 대한 전략을 발전시켜 줄 것을 권고

■ 미국은 덴마크의 양자 원조 중 새로운 주요 공여국인 중국에 대한 원조 내용을 문의한 바, 덴마크는 환경, 에너지, 인권분야에 대한 원조라고 답변

4. 원조 관리 및 집행

■ 주심사국은 원조 효과성과 관련, 덴마크가 공동지원 전략 및 상호 책임성을 강화하는 국가 전략과정으로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, 조직, 직원 및 예산 배분의 효과성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방안을 검토할 것을 권고

■ 주심사국은 덴마크 등록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Mixed Credit Programme이 잔존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LDC 국가에 대한 ODA의 untying을 권고한 2001년도 DAC 권고에 부합되지 않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

– 덴마크는 동 제도에 대한 예산은 전체 원조규모의 3%인 4천만 유로 정도이며 수출 증진책이 아니고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untying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

■ 일부 회원국들은 분권화에 따른 질적 향상조치의 중요성, 현지 직원의 질 향상 필요 등을 제기하고, 미국은 기술지원 및 능력 배양이 중요하다고 제기

■ 덴마크는 분권화 조치 이후 본부 인력의 25%를 축소할 수 있었으며, 현장 실무운영 책임을 현지 대사관에 위임하였다고 설명

5. 인도적 원조

■ 주심사국은 덴마크가 Good Humanitarian Donorship Initiative의 리더국가의 하나로 국제정책 토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

■ DAC은 덴마크 정부의 2002년 인도적 지원성명서를 update하고, 인도적 지원이 정치, 군사적 목적이 되지 않도록 계속 감시해 줄 것을 요청

[자료: 주오이시디대표부]